

노인의 알코올 사용, 우울 및 자존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곽윤복*, 고성희**, 김현경**
전라북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The Effects of Alcohol Use,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Suicidal Ideation of the Aged

Yun-Bock Kwak*, Sung-Hee Ko**, Hyun-Kyung Kim**
Jeollabuk-do Provincial Mental Health Center*
College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알코올 사용, 우울과 자존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전라북도 지역 3개 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재가노인 245명이었다. 연구도구는 한국판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K), 한국판 노인우울척도 단축형(GDSSF-K), 자존감척도(Self-esteem Scale) 및 자살생각척도(Scale for Suicidal Ideation)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Pearson's correlation,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와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우울은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존감이 낮을수록, 종교가 없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며, 종교적 활동을 돕고 건강상태를 증진함으로써 노인의 자살생각을 낮추고 더 나아가 자살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노인, 자살생각, 알코올, 우울, 자존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lcohol use,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suicidal ideation of older adults.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aged 65 years and older were recruited from three welfare centers. A total of 245 older adults was assessed with the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Korean (AUDIT-K),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 Version (GDSSF-K), Self-Esteem Scale (SES), and Scale for Suicidal Ideation (SSI).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 WIN 19.0 program. Higher depression, lower self-esteem, no religion, and poorly perceived health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eterminants of higher level of suicidal ideation in older adults. To prevent or reduce suicidal ideation of older adults, health care providers should consider the determinants identified in this study.

Key Words : Aged, Suicide, Alcohol drinking, Depression, Self-esteem

Received 19 June 2013, Revised 15 July 2013

Accepted 20 Septem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Hyun-Kyung Kim(Chon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kimhk@jbn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우리나라는 201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전체 인구 중 11.8%를 차지하였으며, 2020년에는 15.7%, 2030년에는 24.3%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1].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개인적으로는 소득상실 또는 수입 감소로 인한 경제적 빈곤, 신체·정신적 노화로 인한 건강약화, 사회·심리적 고립, 여가활동 부족 등 매우 다양하고 심각한 노인문제를 초래한다[2]. 따라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직면하게 되는 정서적, 정신적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였을 경우 무망감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감정은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3].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자살 사망자 수는 1990년 314명에서 2008년 3,561명으로 18년간 11.3배 증가하였다[4]. 자살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데, 인구 10만 명당 60세 이상의 자살은 52.7명, 70세 이상은 83.5명, 80세 이상 자살은 123.3명으로 20대의 24.4명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4].

노인 자살은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청소년 자살이 학업성취에 대한 압박이나 실연, 부모나 선생님과 의 불화 등의 단일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비해, 노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만성적인 노환 및 소득원의 상실 혹은 감소로 인한 경제적 난관 등 다양한 자살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다[5].

자살생각은 자살을 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로서, 종종 자살과정에서의 첫 단계이며 자살을 실행하는 하나의 위험요인이 된다[6]. 노인의 자살생각은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자살시도나 자살행위에 앞서므로 자살생각의 결정요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자살행위의 위험을 이해하거나 예방하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7].

선행 연구에서 우울은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어 왔다[5][8,9,10]. 노인의 알코올 사용 또한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데[11,12],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13, 14]은 우울 증 환자에서 알코올 사용 장애가 동반될 경우 자살 위험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알코올 사용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자존감 역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12][15]에서 자살생각의 결정요인으로 제시되어

왔으나, 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던 연구들[10][16]도 있어 자존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알코올 사용, 우울과 자존감의 정도를 확인하고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자살 예방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알코올 사용, 우울, 자존감과 자살생각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알코올 사용, 우울, 자존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 내 3개 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남녀 재가노인으로서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를 복지관별로 각각 90명씩 총 270명을 임의 표집 하였다.

본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한국보건연구진흥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번호 PIRB11-31)을 받았으며, 2011년 11월에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해당 복지관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부서장의 허락을 받았으며,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응답자 스스로 기입하도록 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자와 사전 교육을 받은 연구보조원 2명이 설문을 읽어 주고 응답의 내용을 대신 작성하였다. 총 27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25부를 제외한 24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알코올 사용

대상자의 알코올 사용을 조사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제음주자의 선별을 위해 개발한 도구를 Kim[17]이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Korea, AUDIT-K)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난 1년 동안의 음주의 빈도와 양, 의존증상, 음주문제의 3개 영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8문항은 5점 척도(0-4점), 2문항은 3점 척도(0점, 2점, 4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합이 12점 이상일 경우 문제음주자로 선별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α 값은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2.2 우울

대상자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heikh와 Yesavage가 개발한 30문항의 노인우울척도를 15문항으로 단순화한 도구를 Kee[18]가 한국인에게 맞게 표준화한 한국판 노인우울척도 단축형(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 GDSF-K)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예'나 '아니오'의 양분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α 값은 .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2이었다.

2.2.3 자존감

대상자의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가 개발하고 Jon[19]이 번안한 자존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서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Jon[19]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60이었다.

2.2.4 자살생각

대상자의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Beck, Kovacs와 Weissman이 개발하고 Shin, Park, Oh와 Kim[20]이 자가 보고형 설문지로 변형한 자살생각척도(Scale for Suicidal Ideation, SSI)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9문항으로서 각 문항은 '자살생각이 없음' 0점에서 '자살생각이 많음'의 2점까지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당시 Cronbach's α 값은 .9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α 값은 .93이었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특성, 알코올 사용, 우울, 자존감, 자살생각 정도는 빈도분석과 서술통계로 분석하였다. 알코올 사용, 우울, 자존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를,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57.1%로 여성에 비해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73.0(\pm 6.16)세로서 70~74세가 34.3%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3.5%로 가장 많았고, 종교는 있는 경우가 66.5%이었다. 경제 상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9.6%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60.8%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가 53.9%로 가장 많았다. 자녀수는 3명 이상이 71.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64.1%가 가족관계가 원만하다고 응답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44.5%가 '건강하다'고 응답하였고 병원 방문 회수는 월 1~2회가 35.9%로 가장 많았다.

3.2 대상자의 알코올 사용, 우울, 자존감과 자살생각의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알코올 사용 정도는 40점 만점에 평균 1.90(\pm 4.60)점이었었다. 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15점 만점에 평균 6.28(\pm 3.69)점이었으며, 자존감 정도는 40점 만점에 평균 29.64(\pm 4.52)점이었었다. 대상자의 자살생각 정도는 38점 만점에 평균 3.84(\pm 6.14)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알코올 사용, 우울, 자존감과 자살생각간의 관계

대상자의 알코올 사용과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는 $r=-.03(p=.643)$ 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자존감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는 $r=-.33(p<.001)$ 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우울과 자

살생각간의 관계는 $r=.43(p<.001)$ 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즉 대상자의 자존감이 낮을수록, 우울할 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45)

Characteristics	Category	n	%
Sex	Male	140	57.1
	Female	105	42.9
Age (years)	65-69	65	26.5
	70-74	84	34.3
	75-79	57	23.3
	≥80	39	15.9
Education	None	30	12.2
	≤Elementary	57	23.3
	Middle school	39	15.9
	High school	82	33.5
	≥College	37	15.1
Religion	Yes	163	66.5
	No	82	33.5
Financial status	Good	146	59.6
	Moderate	68	27.8
	Poor	31	12.7
Marital status	Married	149	60.8
	Others	96	39.2
Living status	Alone	85	34.7
	With spouse	132	53.9
	With children	23	9.4
	With others	5	2.0
Number of children	None	13	5.3
	1-2	58	23.7
	≥3	174	71.0
Family relations	Good	157	64.1
	Moderate	65	26.5
	Poor	23	9.4
Perceived health	Good	109	44.5
	Moderate	74	30.2
	Poor	62	25.3
Frequency of clinic visit	None	53	21.6
	<1/month	32	13.1
	1~2/month	88	35.9
	3~4/month	28	11.4
	≥5/month	44	18.0

<Table 2> Alcohol use, depression, self-esteem, and suicidal ideation of participants

	M±SD	Max	Min	Range
Alcohol use	1.90±4.60	40	0	0~40
Depression	6.28±3.69	15	0	0~15
Self-esteem	29.64±4.52	37	18	10~40
Suicidal ideation	3.84±6.14	30	0	0~38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alcohol use, depression, self-esteem, and suicidal ideation

Variables	Alcohol use r(p)	Depression r(p)	Self-esteem r(p)
Suicidal ideation	-.03(.648)	.43(<.001)	-.33(<.001)

3.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F=3.28, p=.001$), 종교($F=-3.09, p=.002$), 결혼상태($F=-2.84, p=.005$), 동거상태($F=-2.36, p=.019$), 주관적 건강상태($F=-4.14, p<.001$), 병원 방문 회수($F=-3.70,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교육정도가 초졸 이하인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 기혼 외(미혼, 이혼, 별거, 사별)의 경우,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 이하인 경우, 병원 방문 회수가 월 5회 이상인 경우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 성별, 연령, 경제상태, 자녀수와 가족관계에 따른 자살생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Table 4> Suicidal idea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ategory	M±SD	t or F	p
Sex	Male	6.11±6.20	-0.50	.616
	Female	6.68±7.55		
Age (years)	65-74	6.61±7.06	0.58	.560
	≥75	5.93±6.39		
Education	≤elementary	8.70±8.74	3.28	.001
	≥middle school	5.01±4.97		
Religion	Yes	5.06±5.26	-3.09	.002
	No	8.55±8.44		
Financial status	Good	6.09±6.54	0.95	.388
	Moderate	6.00±7.03		
	Poor	8.37±7.57		
Marital status	Married	5.02±5.11	-2.84	.005
	Others	8.16±8.30		
Living status	Alone	3.19±5.58	-2.36	.019
	With others	5.13±6.98		
Number of children	0-2	6.74±7.26	0.46	.649
	≥3	6.19±6.63		
Family relations	Good	6.31±7.02	0.01	.991
	Moderate	6.48±7.13		
	Poor	6.32±5.25		
Perceived health	Poor	9.63±8.60	-4.14	<.001
	≥Moderate	4.88±5.24		
Frequency of clinic visit	≤4/month	5.48±5.97	-3.70	<.001
	≥5/month	10.88±8.97		

〈Table 5〉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Variables	B	S.E	β	t	p	R ²	Adjusted R ²	F(p)
(Constant)	14.45	2.74		5.28	<.001	.30	.29	20.48 (<.001)
Alcohol use	-0.02	0.38	-0.00	-.04	.97			
Depression	0.47	0.10	0.28	4.65	<.001			
Self-esteem	-3.28	0.77	-0.24	-4.25	<.001			
Religion	-2.81	0.73	-0.22	-3.88	<.001			
Perceived health	-2.55	0.85	-0.18	-3.01	.003			

Note: religion (no=0, yes=1), perceived health (poor=0, \geq moderate=1)

3.5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특성 중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력, 종교, 결혼상태, 동거가족, 주관적 건강상태, 병원 방문 회수, 우울과 자존감을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

다중회귀분석 결과,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beta=.28$, $t=4.65$, $p<.001$), 자존감($\beta=-.24$, $t=-4.25$, $p<.001$), 종교($\beta=-.22$, $t=-3.88$, $p<.001$), 주관적 건강상태($\beta=-.18$, $t=-3.01$, $p=.003$)이었으며, 이들 변인들은 자살생각에 대해 29%의 설명력을 보였다 ($F=20.48$, $p<.001$). 즉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을수록, 종교가 없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났다.

4. 고찰

본 연구는 일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알코올 사용, 우울과 자존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재가노인의 자살생각 점수는 38점 만점에 3.84점으로,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재가노인의 자살생각을 조사한 선행연구[21]에서의 7.70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또한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였지만, 채점 시 0~38점이 아닌 9~57점으로 측정된 Choi[8]의 연구에서 노인의 자살생각이 27.95점이었던 것에 비해서도 낮았다. 한편 저소득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22]의 연구에서의 7.69점,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을 조사한 Song, Son과 Park[10]의 연구

에서의 8.73점, 골관절염을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한 Lee[23]의 연구에서의 8.31점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부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집에만 머물거나 외부활동이 적은 노인들에 비해 비교적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적극적이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 연구대상자들은 경제 상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59.6%, 가족관계가 원만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64.1%,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경우도 44.5%에 달하는 등 좋은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다수를 차지하여 본 연구에서의 자살생각이 선행연구들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알코올 사용 점수는 40점 만점에 1.90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읍면 단위 노인의 알코올 사용을 조사한 Ko와 Lee[24]의 연구에서 우울한 경우 1.08점, 우울하지 않은 경우 1.14점이었던 것에 비해서는 약간 높았던 반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 재가노인의 알코올 사용을 조사한 Yoon 등[12]의 연구에서의 3.82~4.95점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15점 만점에 6.28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주간보호센터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재가노인의 우울 정도를 측정된 Kim[25]의 연구에서의 6.30점과 유사하였다. 반면 저소득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Moon[26]의 연구에서의 8.54점, 만성질환으로 입원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Yeo[27]의 연구에서의 8.29점,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시설노인을 대상으로 한 Kim[25]의 연구에서의 8.64점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존감 정도는 40점 만점에 29.64점

으로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Yoon 등[12]의 연구에서의 29.11과 유사하였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만성질환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Yeo[27]의 연구에서 자존감 점수가 27.26점 이었던 것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하여 Yeo[27]는 만성질환 노인 환자에게 있어서 건강의 상실과 함께 노인이 겪는 일련의 사건이 자존감의 상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알코올 사용과 자살생각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노인정, 교회, 아파트, 박물관대학에서 60세 이상의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Jung[13]의 연구에서 알코올 중독과 자살생각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던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음주량을 재가노인의 자살생각의 한 영향요인으로 보고한 연구[12]도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사용 정도가 매우 낮아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우울과 자살생각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상관성을 보고했던 선행연구들[13][17]의 결과를 지지하였고, 자존감과 자살생각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자존감과 자살생각 간의 상관성을 보고했던 선행연구[17]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울, 자존감, 종교, 주관적 건강상태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자살생각의 영향요인들 중 우울에 의한 설명력이 가장 높아 우울이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했던 선행연구들[5][8,9,10]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울을 예방하거나 이를 조기에 선별하여 노인들의 우울을 관리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각적인 보건프로그램과 중재전략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자존감 역시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어 자존감이 자살생각의 유의한 영향요인이라고 보고했던 선행연구[16]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재가노인의 자존감을 증진하기 위한 중재가 자살생각의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있어서는 종교가 없는 노인의 경우 종교가 있는 노인에 비해 자살생각이 높았다. 이는 종교를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으로 보고했던 선행연구[2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종교 활동이 자살생각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이 보통 이상인 경우에 비해 자살생각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건강상태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높다는 선행연구들[17][21][28,29]의 결과를 지지하며 노인의 건강상태를 증진하는 것이 자살생각의 예방 및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일부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알코올 사용, 우울 및 자존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특히 연구대상자 중 경제상태 만족도, 가족관계,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들의 비율이 높아 본 연구결과를 재가 노인이나 전체 노인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 다양한 기관이나 건강상태를 가진 노인을 대상으로 비교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반복연구를 통해 노인에서의 알코올 사용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가 보다 명확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일부 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알코올 사용, 우울 및 자존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결과 우울이 노인의 자살생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낮은 자존감, 종교 없음, 나쁜 주관적 건강상태 또한 자살생각을 높이는 유의한 영향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역사회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건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연계 방안의 모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노인의 종교적 활동을 돕고 건강상태를 증진함으로써 노인의 자살생각을 낮추고 더 나아가 자살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가노인의 알코올 사용과 자살생각 간의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본 연구대상자의 알코올 사용 정도가 매우 낮았음에 비추어 볼 때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고 알코올의 사용량, 사용기간, 빈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알코올 사용을 측정하고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REFERENCES

- [1] DOI: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read&aSeq=260367
- [2] C. Im, Challenge of aging society. Seoul: Nanam, 2003.
- [3] H. Yoon, A study of factors that influence contemplation of suicide by the elderly.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10.
- [4] DOI: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250282
- [5] H.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stress, hopelessness, and depression to suicidal ideation in the elderly and the adolescents. Ph.D.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2008.
- [6] A. T. Beck, M. Kovasc, & A. Weisman, Assessment of suicidal idea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47, No. 2, pp. 343-352, 1979.
- [7] H. Kim, A study on epistemology of Korean elder's suicidal thought.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2, No. 1, pp. 159-172, 2002.
- [8] H. Choi, The structural model elderly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Vol. 14, No. 4, pp. 355-375, 2008.
- [9] H. K. Kim, S. H. Ko, & S. H. Chung, Suicidal ideation and its risk factors among the elderly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 24, No. 1, pp. 82-92, 2010.
- [10] Y. Song, J. Son, & S. Park, An analysis of eco-systematic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who are liv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0, No. 2, pp. 643-660, 2010.
- [11] M. Yoon, S. Kim, & W. Chae, The effects of alcohol use, mental health factors on seniors' ideation of suicide.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Vol. 11, No. 1, pp. 27-44, 2010.
- [12] E. Jung, A study on risk and preventive factors for elderly suicide. Master's thesis, Aju University, 2005.
- [13] A. Dumais, A. D. Legsage, M. Alda, G. Rouleau, M. Dumont, N. Chawky, M. Roy, J. J. Mann, C. Benkelfat, & G. Turecki, Risk factors for suicide completion in major depression: a case-control study of impulsive and aggressive behaviors in men.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62, pp. 2116-2124, 2005.
- [14] L. Sher, M. A. Oquendo, H. C. Galfalvy, M. F. Grunebaum, A. K. Burke, G. Zalsman, & J. J. Mann, The relationship of aggression to suicidal behavior in depressed patients with a history of alcoholism. *Addictive Behaviors*, Vol. 30, No. 6, pp. 1144-1153, 2005.
- [15] H. Kong & M. Lee,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elderly'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the suicidal ideatio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Vol. 13, No. 3, pp. 113-125, 2012.
- [16] J. Bae, Structural equational modeling for elderly suicidal thoughts.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23, No. 2, pp. 343-375, 2005.
- [17] Y. S. Kim, A epidemiological study on the prevalence of alcohol use disorders among the Korean adult popul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Vol. 37, pp. 67-88, 1999.
- [18] B. S. Kee, A preliminary study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 Version.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 35, No. 2, pp. 298-307, 1996.
- [19] B. J. J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Vol. 11, No. 1, pp. 107-130, 1974.
- [20] M. S. Shin, K. B. Park, K. J. Oh, & Z. S. Kim, A study on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9, No. 1, pp. 1-19, 1990.
- [21] J. Ha, Y. Song, & H. Nam, The effect of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failed belongings to elderly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56, pp. 65-84, 2012.

- [22] J. H. Kim,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of the low income elders living at home.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7.
- [23] S. Lee, Disability,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older adults with osteoarthritis. Master's thesis, Chunnam National University, 2008.
- [24] M. Ko & Y. Lee, Relationships of geriatric depression on leisure activities and drinking habits among the elderly. Chonnam Journal of Nursing Science, Vol. 13, No. 1, pp. 63-80, 2008.
- [25] Y. Kim, A comparative study on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cognitive function and depression between the elderly residing institution and home.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11.
- [26] H. Moon, Comparison of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elderly patients in geriatric hospital and elders in home visiting health program.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2008.
- [27] Y. O. Yeo,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activity of daily living, and depression of elderly with chronic disease.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10.
- [28] C. Chen, M. Yang, M. Yang, S. Chang, K. Chueh, Y. Su, C. Y. Yu, & T. C. Cheng, Suicidal thoughts among elderly Taiwanese Aboriginal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Vol. 23, pp. 1001-1006, 2008.
- [29] Y. H. Choi & S. H. Kim, Suicide ideation and related factors according to depression in older adults. Journal of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8, No. 2, pp. 345-355, 2008.

곽 윤 복(Kwak, Yun Bock)



- 2008년 2월 :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12년 2월 :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2년 8월 ~ 현재 : 전라북도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생명사랑팀
- 관심분야 : 노인, 정신간호, 자살

· E-Mail : yunbock@hanmail.net

고 성 희(Ko, Sung Hee)



- 197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199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이학박사)
- 1982년 4월 ~ 현재 :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노인간호

· E-Mail : jane@jbnu.ac.kr

김 현 경(Kim, Hyun Kyung)



- 1994년 8월 :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9년 9월 ~ 현재 :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노인간호

· E-Mail : kimhk@jbnu.ac.kr